

우리나라 전력산업계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

시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구자운 위원장 인터뷰 ...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프로필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ENSEEHT 전기공학 석사 졸업
- ENSIEG 전기공학 박사 졸업
- (現)한양대학교 전자시스템공학과 교수
- (現)국제대전력망기술회의(CIGRE) 한국대표
- (現)시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Q 전기위원회 슬로건이 Innovative Thinking Powerful Future로 알고 있습니다. 슬로건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전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써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강화, 전기요금 합리화 및 소비자 권익증진,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광역정전사고 예방 등의 주요 정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천년 전력산업의 희망찬 불빛이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슬로건 “Innovative Thinking Powerful future”입니다.

현재의 전기위원회는 달리는 기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차게 달릴 기차가 열심히 달리다가 멈춘 상태로 이 기차를 전진시킬지 후퇴시킬지, 아니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또는 그대로 멈추어 있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전기위원회가 새롭게 전개될 전력산업을 견인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도약을 위한 성장발판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방향을 잘 제시하여 전기위원회가 국가전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직접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파워 비즈니스’ 여건을 만들고 전력산업의 방향을 잡아주는 ‘전기산업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 수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정부정책을 뒷받침 하는 동시에 국가발전과 국민경제, 서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변화와 도전으로 전력산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새로운 마켓시장이인 저탄소 녹색성장, 스마트그리드 체계구축 등 산업전반의 전력산업 패러다임변화가 우리전기인에게 좋은 기회와 높은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산업의 긍정적 변화를 잘 활용하여 우리 전력산업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전기인들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각 분야에 계신 많은 전기인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위원장님께서서는 전기계에서는 처음으로 ISH 회장에 선출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기술인들에게 ISH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국제고전압심포지엄(ISH,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Voltage Engineering)은 1972년 독일 Munich 기술대학에서 창립총회를 거쳐 탄생되었으며, 격년제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ISH는 세계전력산업 기술시장에 영향력이 큰 중전기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로 ISH 2013 한국유치는 국내 중전기 분야가 글로벌리딩 그룹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ISH에서는 CIGRE(유럽주도)와 IEEE의 중간성격의 학술적인 논문이 발표되며, 범 세계적으로 고전압분야 전문연구기관과 대학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전기 산업체들이 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 등을 하는 학술대회로 일본(1993년 개최)과 중국(2005년 개최)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한국에서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30개국 700명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기적으로 고전압공학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높은 참여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회의에서 제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본 회의를 통해 국내의 고전압공학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전력산업에 몸담은 한사람으로써 한국이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이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국가적 마케팅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고전압공학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적인 기술 트렌드가 전력산업 전반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전력기술인 여러분께서도 한국에서 2013년에 개최되는 ISH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위원장님께서서는 시장구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현 상황 속에서 전력시장의 운영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어떠한 추진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보다는 항상 전기위원회의 공통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만큼, 전기위원회 위원들과 사무국,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우리나라 전력산업계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기업이 직접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여건조성에 힘쓰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공급 안정성 유지와 운영상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전기위원회 위원장이면서 학계의 교수로서 우리 전력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기인 들이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그동안 전력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전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력산업의 제2차 르네상스기로 불리 우는 녹색성장, 스마트그리드 등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융복합 신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우리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파생되고 있으며 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각자 종사하고 계신 분야에서 넓은 관점에서 전력산업을 주의 깊게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되고 있는 미래 산업은 우리전기인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역동적인 자세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가산업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 전기인의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졌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전기인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국가 산업의 중추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로이 변화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